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79호
7월 26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 | |
|----------------------------|------------------------|
|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 ■ 농협
301-0153-7296-01 | ■ 문의
02)2675-5181~3 |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개최

‘성경에 대한 개념’ 성경대로여야

2025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 개최…각종 회무처리



본 교단(총회장 엄하석 목사)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7월 17일(목) 오후 1시 은혜
와진리교회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
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드려진 예
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기
지방회장 김종연 목사의 기도, 정체위원회 조용목 목
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제 20: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를 통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
은 완전히 물리하고 만다. 성경은 절대무오하신 하나님
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개념
이 확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에 대한
개념이 성경대로여야 한다. 이것이 아니면 모두 헛되
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성경관이 확고부동해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이 같은 확고부동한 성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한 길
을 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회원 모두를 축복
했다.

이어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총회장 엄하
석 목사 주재로 총무 오세준 목사의 회원 접명 후 총



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총무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74차 정기
총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해외선교사
목사인수, 사모연합회 정기총회, 74차 총회장 엄하석
목사 선출, 제74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 모임 고시
일정 수립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 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주
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
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천 보고, 전도국과 농어촌국 국장

변경 건(전도국장 정환무 목사, 농어촌국장 성기찬
목사)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부
루나이 레디슨호텔에서 열리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장 및 선교리더회의에 본 교
단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여 활발한 선교
선교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7월 22일(화)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 동부전선 육군 제2 신속대응사단에 총회
장 엄하석 목사를 비롯 중진 목회자들이 위문하기로
했으며 또한 교단교육국(국장 조선남 목사) 주관으
로 오는 7월 27일(주일)부터 29일(화)까지 2박 3일간
대림밸리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열리는 2025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에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감염병환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차별금지법 상정되지 못
하고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허사가 되고
압도적인 한·미 동맹의 군사력으로 중단 되도록 한·
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
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이들의
계획 또한 저지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더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교단 제74차 총회 제2회 임원회

중·고 청년들 무더위에도 수련회로 모여 기도에 힘쓴다

세계AG 아태지역 총회장 및 선교리더 회의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 참석

교단 총회(총회장 엄하석 목사) 제74차 총회 제2
회 임원회가 지난 7월 17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
리교회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 후 회무를 처리하
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정체위원장 조용목 목사가 배석한
가운데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부총
회장 이인호 목사의 기도 후 총무 오세준 목사의 회
원접명,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
준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최정식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제74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
모임 고시일정 수립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 토의 사항으로 교
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
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천 보



고, 전도국장에 정환무 목사, 농어촌국장에 성기찬
목사로 임명변경 건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
었다.

기타사항으로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부
루나이 레디슨호텔에서 열리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장 및 선교리더회의에 본 교
단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가 참석하여 활발한 선교
선교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7월 22일(화)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 동부전선 육군 제2 신속대응사단에 총회
장 엄하석 목사를 비롯 중진 목회자들이 위문하기로
했으며 또한 교단교육국(국장 조선남 목사) 주관으
로 오는 7월 27일(주일)부터 29일(화)까지 2박 3일간
대림밸리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열리는 2025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에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감염병환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차별금지법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허사가 되고 압도
적인 한·미 동맹의 군사력으로 중단 되도록 한·미동
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고, 여
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이들의 계
획 또한 저지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더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러한 기도(1)’



조용목 목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14)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구
하는 기도,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금지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최
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절한 조처를 행하십니다.
(마 7:7~11)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조처를 행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감
사한 일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많은 사례와 본보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하나님께 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성안에 의인 오십 명이 있는
데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은 사십 명, 삼십 명,
이십 명, 열 명으로 숫자를 줄여서 계속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인 열 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
라는 멸망 받았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을
소돔성에 보내어 룻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불잡
고 소돔성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
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의지하여 기도한 것
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신
의 태도와 의향을 여러 번 바꾸실 정도로 애하는 마음
으로 간절히 호소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 아곱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분노한 형의 낯을 피해 도피 길에 오른 아곱은 들
에서 돌을 베고 잡들었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
에 섰는데 그 꽉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
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아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
였습니다.(창 28:20~22) 밧단 아람으로 간 아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더부살이하는 동안 인색하
고 간교한 외삼촌 리반이 거듭 고용계약을 위반하였

으나, 아곱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
어 먹을 것을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 부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곱이 구
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께서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
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14)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셋째는,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
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시내산 아래 당도하여 며두를 때 하나님께서 모
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
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
래의 백성들은 타락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
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에게 알리신 다음 그들을 진厲하길 계획을 발표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
을 면제해 달라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중재기도
를 하였습니다.(출 32:10~13)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
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우며 호소하였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
시고 자신의 태도와 의향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우리
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담력을 얻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교훈이 된 요점들을 마음에 깊
이 새기고 이를 본받아 기도하므로 다양한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6차 세미나 및 기도회

한 목사(안양 은혜교회)가 “尉어신학은 신성 모독이며
이단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어 3부 기도회에서는 위원회 총무 박성화 목사(제
주 성산중앙교회) 인도로 △기장 총회의 바른 정체성을
위해 △교단에서 키어신학 퇴출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
정에 반대를 위해 △8월 25~26일 전국 선교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장 경기중부노회 증경
노회장 차장현 목사(부곡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무리됐
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8월 25~26일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교단 내 키어신학 퇴출 등을 위해 열리는 기
장 전국 선교대회에 적극 참석을 결의했다.

1부 예배에서는 주용태 목사 사회로 성양권 목사(부
천 사랑의교회 원로)의 기도, 위원장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의 인사말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장을 지낸 김성



임원들은 감염병이 각 나라별로 발생보고가 있는 만
큼 예기치 못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에 각별히 유의
할 것을 총회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했으며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
록, 또한 말씀에 과정으로 영혼을 수령으로 빼뜨리는 사이
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정부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핵무장 압력을 봉쇄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
생한 미군과 ‘한미동맹’의 지대한 역할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을 강조했다.

한기총, WEA 반대 2차 대책포럼 연다

총신대 문병호 조직신학교수 발제 강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이하 한기총)는 7월 11일(금) 오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6-3차 임원회를 열고 'WEA 반대 2차 대책포럼' 계획을 결의했다. 포럼은 오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 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하며,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문병호 교수(조직신학)가 발제한다.

이날 임원회에는 지난 4월 가진 WEA 대책 포럼과 짐바브웨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밸제한 굿윌 샤나(Goodwill Shana, WEA 의장)의 신학적 정체성 규명 기자회견 내용이 보고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샤나 의장의 신사도운동 의혹과 종교 다원주의·포용주의의 신학을 지적했으며, 복음주의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굿윌 샤나는 명예박사 학위 외의 정규 신학교육 이수 경력이 없



는 상태에서 WEA를 사실상 대표하는 의장 등 이와 관련된 준비는 대표회장에게 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운영비 후원 건과 관련하여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을 위해 내어놓은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보고하면 투명하게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기총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8.15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 선

정 등 이와 관련된 준비는 대표회장에게 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상반기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 4월에는 고경환 대표회장, 김정환 사무총장, 이의현 비서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을 방문해 아픔을 나누고 성금을 지원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성금을 전달했다.

마약 및 중독 예방 관련 공조, 상호협력

청년 세대가 마주할 문제에 대한 대처, 건강한 캠퍼스 조성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이하 KUPM)와 CCC교수선교회, 한국기독보건협회(이하 한기협)가 6월 26일 다음세대 사역과 미래 선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대학 내 마약 및 각종 중독 예방을 위해 △공동 세미

나, 포럼, 캠페인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 개발과 보금△마약 및 중독 예방 관련 정책 제안 및 연구 협력을 중심으로 상호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주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생명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캠퍼스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CC 교수선교회 김철성 교수는 "마약 중독의 장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학가에 복음과 중독 예방 활동이 효율적으로 퍼져나가도록 CCC 교수선교회와 한기협, KUPM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한기협 김지연 대표는 '건전한 대학생활이란 주제로 강의하며, 마약을 비롯한 중독과 자살 문제 등 청년 세대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법을 전했다.

2025년도 '제17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 열려

성경, 찬송, 교회, 주일학교, 기독교학교 등 주제로 설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주최한 2025년도 제17회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가 지난 7월 6일(주일) 주다산교회에서 "살름부흥"(요 20:21)을 주제로 26개 교단이 연합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특별히 이번 한국장로교의 날 예배에서는 성경, 찬송, 교회, 주일학교, 기독교학교, 사회봉사, 해외선교, 비전 등 8가지 주제를 가지고 8개 교단 종회장들이 직접 참석해 메시지를 전해 연합의 의미를 더했다.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한국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로서, 장로교회가 더욱 하나님 돈 힘을 모아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분열, 저출생, 고령화, 기후환경, 경기침체, 고실업



율, 외교안보 등 시급한 당면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날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 갈등의 심화는 모두 죄성 때문으로서 하나님

과의 살롬이 필요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롬을 이룰 수 있다"면서 "26개 교단이 함께 하는 한장총이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섬기며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서공회, 탄자니아에 성경 기증

성서공회, 탄자니아에 성경 기증…선한 영향력 기대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는 지난 7월 8일(화) 개포동교회(이풍인 목사)의 후원으로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5,643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개포동교회는 금년, 부활절을 기념하며 온 성도가 성경 후원을 위해 현금하였으며,



작년 6월 르완다에 '긴야르완다어 성경' 5,000부를 후원한 이후 두 번째로 해외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는 "이 성경이 한 분한 분에게 전달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탄자니아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놀랍게 역시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복음을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했다.

탄자니아성서공회 알프레드 키몽e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이곳, 탄자니아에는 성경을 갖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신 성경은 탄자니아성서공회와 탄자니아 영혼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공회 호재민 총무는 "이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나타날 선한 영향력을 기대했다.

법원, 코로나 '대면 예배' 목사에 무죄 판결

종교의 자유 헌법상 최고가치와 거리두기 실시 등 인정

코로나 유행 때 내렸던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드려 고발됐던 예수사랑 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고양시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제한조치는 어겼지만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최고가치라는 점, 예배 참석인원을 최대한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덕래 목사는 지난 2020.9.13. 10시 20분 경 예수사랑교회에서 27명 신도와 예배드리

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양시에 의해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산불 진화 희생자 유가족 위한 위로금 전달

애터미-사랑의열매, 3월 기부금 100억 중 47억 우선 배분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재난·재해 중 단일 기업 기준 최대 규모의 성금 100억 원을 기부한 애터미(회장 박한길)의 기부금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

병준)는 영남 지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헬기조종사 등 25명에게 47억 원 규모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로지원금은 지난 3월, 애터미 주식회사가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100억 원 중



일부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희생자 1인당 5억 원, 중상자에게는 치료비 및 재활 지원을 위해 2억 원, 경상자에게는 치료비 명목으로 2천만 원씩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 전달식은 산불 진화작업 중 사망자와 중상자 등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경남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피해 유가족과 박한길 애터미 회장, 애터미 회원자 조단체인 애스온에스 나눔회,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유가족에게는 희생자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뜻을 담아 감사패도 함께 전달됐다. 전달 대상자 중에는 창녕군 산림녹지과 소속으로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 숨진 30대 공무원도 포함됐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

구세군 한국군국·전국재해구호협회 업무협약 체결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김병준)이 희망봉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신훈)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내 재난 구호 시스템 강화에 힘을 모았다.

구세군과 희망봉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7월 3일, 서울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에서 김병준 구세군 사령관과 신훈 희망봉리지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및 재해 구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재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양 기관이 뜻을 모은 결과다. 양측은 △긴급구호 현장 활동 및 운영 △재해 구호 자원, 장비 지원 및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구호물자 관리 및 효율적 배분 △공동 브랜드 홍보 활동 등 5개 분야에 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구세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과 오랜 기간 축적된 자원봉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구호활동 및 물류 관리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희망봉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유

일의 법적 재난 구호 전문기관으로서 현장

구세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과 오랜 기간 축적된 자원봉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구호활동 및 물류 관리

에 기대된다.



월드비전, 아동 정신건강 위한 포럼 개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효과 공유…효과적인 가족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7월 14일(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아동 정신건강의 이해와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 제안' 호남권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모자녀 관계향상의 중요성과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 효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가족 중심 개입 모델을 지역사회에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공회 호재민 총무는 "이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나타날 선한 영향력을 기대했다.

행사는 월드비전과 광주북구를 전진숙 의원,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진숙 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이세민 보좌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의 인사말과 김성완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박정수 전라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축사 순으로 이

어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이주연 전남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를 주제로 부모의 역할과 양육 유형이 강조했다. 이어진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월드비전과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아이존'과 공동으로 3년간 개발 및 운영한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함의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애착, 정서 표현, 의사소통 코칭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비전은 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형 공모사업 형태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명의 말씀 |



백영자 목사

- 교단 회계
- 직전 전국여교역자국장
- 전라지방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

(출 15:22~27)

라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융의 아내는 풍족할 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융 1:1). 모든 것을 잊었을 때 융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했습니다(융 2:9).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겪어야 주시지 않습니다(잠 10:22).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로 여겼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끄러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네 고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계 3:17). 믿음은 고난 당할 때 투덜거리지 않습니다(약 1:3).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갈 6:9).

‘술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 사람의 믿음이 원래 그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믿음생활의 목적은 교회가 부흥되거나 부자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전 3:6). 믿음 생활의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벧전 1:9).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딤전 1:12). 모세는 기도하고 순종하여 마리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십니다.

2.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출 15:26)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요 4:13).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속아나는 생물이 됩니다(요 4:14).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하게 치료받았습니다(마 9:21).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나야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왕하 5:5). 이스라엘 왕은 그 말에 웃을 끊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입니다’하고 소리쳤습니다(왕하 5:7).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은 십오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왕하 20:5-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 19:26)고 말씀하셨습니다. 광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호 12:3-4).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55:8) 하나님은 통곡하며 매달렸고(삼상 1:10),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에 4:16). 마리의 쓴 물은 사람을 원망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3. 나 여호와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라 (출 15:27)

풀 투르니에의 <치유>에는 ‘중간단계에 놓인 불안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의 확신과 눈에 보이는 응답 사이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걸웃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마 9:20).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안 정말 내 병이 나을까 하고 떠오르는 불안감입니다(마 9:21). 믿음이 응답되면 중간단계에 놓인 불안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59만9천9백8명이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놓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불안감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

야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민 14:9).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창 9:14) 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여서 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다면 마라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보자기를 잘 풀어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갈 6:9).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요 20:29)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내게 주신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계 3:11).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단 10:12)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 하던 첫날부터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왕 22:13).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주시지도 않을뿐더러 시험당할 때 괴할 길도 주십니다(고전 10:13). 마리를 지나면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리를 힘차게 통과하여 엘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

2025년 대학총장 하기연수회



대학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박사(성결대 명예총장)는 지난 7월 7~10일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대학총장포럼 주관으로 한국 신학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년 대학총장 하기연수회’를 개최했다. AI시대의 교육 환경의 변화와 기독대학의 대응’의 주제로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헬悖트리니 티신학대 오덕교 총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노숙자 찬양 페스티벌



노숙인들이 주인공이 된 찬양제가 국내 최초로 열렸다. 한국노숙자총연합회(총재 김호일 목사,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 제1회 한국노숙자(자유인) 찬양 페스티벌이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찬양제는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한국원로목자교회, 한국기부재단, 한끼나눔, 미션코리아가 후원했다.

낙태 전면적 허용 비판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회장 신명섭 원장)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위험천만한 반(反) 생명 입법 시도라고 규탄하고, 정부의 예방적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했다.

캄보디아 IU총장 전주 예수병원 견학



캄보디아 IU 대학 총장이자 산하기관 Sen Sok Hospital(이하 센속 IU병원) 병원장인 사보 오자노(Dr. Sabo. Ojano)가 지난 13일부터 3일간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총식)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센속 IU병원 병원장과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재활의학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로 재활병동을 개설한 전주 예수병원의 특화된 재활센터를 견학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반기독 문서를 제공하는 동아일보 사과하라

동아일보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해빛교회(전 은혜로교회, 신옥주)의 반기독 문서를 장기간에 걸쳐 광고로 배포하는 역할을 하여, 기독교계가 합의하여 중단한 바 있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부터 어느 소속이나 단체나 교주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또다시 반기독 문서를 신문에 광고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어, 동아일보가 과연 언론으로서의 품위는 있는 것이며, 정통 기독교를 왜곡·부정하는 반그리스도적이며, 사이비 종교의 홍보 매체인가 묻고자 한다.

현재까지 3번에 걸쳐서 반기독적인 내용이 게재되었는데(2025년 6월 26일, 7월 3일, 7월 10일에 전면광고) 전에 반기독 광고를 내던 내용과 엇비슷하다. 그 내용의

핵심은 정통 기독교에서 기독(基督)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에서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마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강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짜깁기’ 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악함이 이단사이비를 넘어, 반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론(正論)을 지향해야 할 동아일보가 버젓이 일주일 간격으로 이들의 주장하는 바를 언론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와 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반기독 문서에 실린 내용을 몇 군데 살펴보자. ‘인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6월 26일자에서 ‘왜 2천 년간 예수의 말대로 단 한 명의 부활한 자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자도 없었을까?’라며, 이것이 ‘신약 2천 년도 무효하시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한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7월 3일자에서 ‘예수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했고,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는다는 모든 지들도 다 죽은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한다.

그리고 더욱 확장한 것은 7월 10일자에서 ‘예수는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거짓말로 2천 년간 사망의 목자가 되어 속인 자다’ ‘육체가 죽은 혼의 상태인 인생 예수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여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고 하였으나 말만 있고 증거가 없는 지옥불의 소리로 절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헛된 삶을 살게 하여 지옥불로 보내자’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웬만한 이단이나 사이비는 자신들의 실제로 밝히지 못하는 반그리스도 세력의 확장한 주장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이면에 연속 계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명예와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목숨 걸고 투쟁한 선배들과 동아일보를 신뢰하여 구독해 왔던 국민들과 교묘하게 기독교를 허물려는 악의 세력으로 하여금 부정되는 기독교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복음화운동은 하나님의 명령…바른 복음전파의 사명 우리들에게!”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충남본부 임원 및 각 시군 임원 단합 연수회 개최

(사)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임원 및 각 시군 임원 단합연수회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지난 7월 21일(월)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하늘샘교회(담임 이성수 목사)에서 충남본부 임원 및 각 시군 임원 단합 연수회를 개최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심지를 공고히 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충남지역 제2의 부흥을 위해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1부 순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대표본부장 오종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실무본부장 김병국 목사의 기도, 서기 김동현 목사의 성경봉독, 대외협력본부장 손보라 목사의 특송,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의 설교, 총재 이태희 목사의 격려사, 1부사무총장 김석종 목사의 광고, 고문 박종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막 16:14-20,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다하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는 주님의 지상최대의 명령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다. 막 16:14 이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온 천 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 땅 끝까지의 복음화를 위한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분부하셨다. 민족복음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잘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 목사는 이를 위해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사명은 “첫째 교회부흥운동, 둘째 성령충만 기도운동, 셋째 연합운동, 넷째 복음화운동, 다섯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2부 순서로는 단합연수회로 상임본부장 안준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감사 이

성수 목사의 환영사, 대표본부장 오종설 목사의 충남본부 임원 소개 및 취임 및 사업소 개, 총재 이태희 목사의 2027년 8,000만 민족복음화대선회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태희 목사는 격려의 말씀을 통해 “복음화운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특히 민족복음화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부흥사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WEA 등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모든 분들이 귀한 사명을 소명으로 알고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3부 순서로는 친교와 단합의 첫 번째 시간으로 천안지역 대표회장 한익상 목사의 인도로 족구가 진행되었으며 무더운 날씨로 인해 잠시 후 카페로 옮겨 친교를 나누기도 했다.

4부 순서로는 친교와 단합의 두 번째 시간으로 회계 합동주 목사의 진행으로 경품 추첨 시간과 저녁 식사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성수 목사의 환영사, 대표본부장 오종설 목사의 충남본부 임원 소개 및 취임 및 사업소 개, 총재 이태희 목사의 2027년 8,000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충남본부 회원들은 이제 2027년 8,000만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 준비 중에 있는 바 최선을 다해 속해 있는 지역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율리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도 각 시군 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충남복음화에 기여하고 민족복음화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7월 14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세움교회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음 한 뜻 되어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음교회)의 대표기도로 옥경숙 목사(순복음물동산교회)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 갈릴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딤후 3:1-5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의 모양, 능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경건의 능력은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며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바른 신심을 갖는 것 만이 아니다. 바르고 진실된 삶, 바르고 진실된 인격을 갖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신앙은 믿는 마음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도 함께 하는 것이다. 세상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한 후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바교회)의 현금기도, 김갈렙 전도사의 봉헌특송, 사회자의 광

고,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순복음세움교회에서 제공한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물회와 회비빔밥, 생선구이 등으로 맛난 식사와 교제를 한 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서로 격려하고 9월 월례회 때 만나기로 하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수사랑교회 성전이전감사예배, 새로운 출발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종연 목사)는 지난 7월 12일(토) 오전 11시 예수사랑교회(담임 권재연 목사)에서 성전이전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함께 축복했다.

이번 감사예배는 이준구 목사(PDTS 간사/새빛교회)의 찬양 인도로 경건하게 시작되었으며,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의 사회, 재무 이동을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윤진철 목사의 성경봉독, 예수전도단 PDTS 간사들의 은혜로운 특송이 이어졌고, 지방회장 김종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이사야 43:16~21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에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임한다”고 강조했



다. 또한 “권재연 목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형중 목사(열방새순교회)의 권면, 김홍광 목사(전임회장/주내순복음교회)와 고석혁 목사(PDTS 교장/그사랑교회)의 축사가 더해져 교회 이전을 축하하고 새로운 사역을 응원했다. 회계 김경순 목사의 현금기도, 조영숙 목사와 임태형 집사(PDTS 간

사/제자들교회)의 현금 특송도 예배의 은혜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담임 권재연 목사의 인사와, 교단 총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축도로 감사예배가 마무리되었다.

예배 후에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참석자들은 새로운 예배당에서 펼쳐질 사역의 비전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격려를 나누었다.

“사랑의 종이 됩시다”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7월 14일(월) 다미세교회(담임 이원정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나리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회원간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찬양 인도에 이어, 이원정 목사의 사회, 성경봉독에 이광우 목사(지방회 총무), 대표기도에 임경영 목사(지방회 회부장)가 순서를 맡았으며,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9:38~42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종이 됨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



님의 장례를 위해 헌납된 무덤과 몰락, 침향을 언급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며 순종임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힘쓰자”며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와 찬양,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했다.

이어진 중보기도는 표현자 목사(지방회

회계)가 인도하며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미경 목사의 현금기도,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주재로 진행되어 각종 안건을 논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다미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교제를 나눈 뒤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제13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 개최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 관련 의견 교환

예하성 전국사모회(회장 손선희 사모)는 지난 7월 17일(목) 오후 12시 예하성 전국사모회 회장 30분 은혜와 진리 교회

안양성전 3층 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를 논의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손선희 사모회

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수석부회장 황인경 사모의 기도, 서기 김재희 사모의 성경봉독, 직전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사 55:8-9 말씀을 본문으로 ‘고 수리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하시고, 섭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섭기라

고 하시며,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하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과 사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고통당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광야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7월 14일(월) 오전 11시,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선한빛교회(담임 이태우 목사)에서 제74차 2025년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백 목사는 출 15:22-27 말씀을 본문으로 ‘마리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광야 같은 시기마다 시험하시고, 치유하시며,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시험을 통해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고, 치유로써 아픔을 회복시키시며, 마리의 쓴 물 이후 엘림의 샘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이 있음을”을 선포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



했다.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에는 정책위원장과 총회, 교단 임원과 산하 지방회, 각 지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고, 전임회장 최형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회의는 최남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 주재하에 회원 점명 및 총무·서기·회계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정기 모임 일정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등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했다. 김감신 목사

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후 참석자들은 선한빛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과 다과를 나누며 짧지만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됨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전라지방회는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 교제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지방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예정이다.

“다시 우리의 사명을 찾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윤배 목사)는 지난 7월 14일(월) 오전 11시, 전리와 사랑교회(담임 김진호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최은성 목사(승리하는 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근설 목사(생명수고교회)의 기도, 전임회장 김진호 목사의 설교, 전임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진호 목사는 창 5:21~24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우리의 사명을 찾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애들이 무두셀리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본문을 인용하며, 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날 목회자들도 초심을 회복해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통성기도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중앙샘교회)의 사회로 각 부서 보고가 유인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방회 모임 시 드려지는 예배 현금은 장소를 제공

한 교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의되었다. 또한 교역자들의 단합과 체력 유지를 위한 체육부 모임을 매달 한 차례씩 갖기로 하였고,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의 부흥을 위한 합심기도 후 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와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교제의 시간으로 함께 점심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7월 15일(화) 밝은빛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말씀과 교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눴다.

이날 1부 예배는 고성록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김진태 목사의 사회, 오승희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 중장단의 은혜로운 특송에 이어 서성영 목사(순복음복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고전 12:30~31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목회를 자식과 경험으로 시작하지만, 참된 목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하고 자신 역시 아버지의 목회적 유산을 이어받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과정을 나누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



에 힘쓸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며 성령충만을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인도로 우행지 전도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총무 김진태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교단, 지방회 그리고 건강이 불편한 목회자들을 위한 합심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정상호 전도사의 헌금기도와 서성영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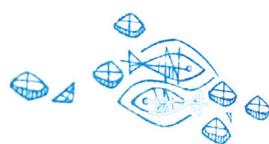
이어진 2부 월례회는 김남수 회장의 인도로 안건들을 처리했으며, 밝은빛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오승희 목사가 독일에서 직접 준비한 미용제품과, 우행지 전도사가 가져온 열대과일과 떡 등 다양한 선물도 나누어져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더했다. 또한 김효신 목사의 섬김으로 인근 카페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이 땅의 아버지들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 옛날의 영화(?)를 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만큼 이제는 너무도 초라해져서 옛날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내 가정, 내 식구의 의식주(衣·食·住)는 내가 책임진다며 가정의 모든 짐을 한 몸에 지고 가던 장한 일들도 지난 이야기, 그래서 책임도 가벼워졌다고 스스로 위로나 해야 할지...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치이고 후배들에게 밀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구세대라고 이름 붙여지고, 명퇴니 조퇴니 하여 직장을 끊어 어깨에 힘이 빠진 고개 숙인 아버지들,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휴일도 아닌 날에 산행에 오르는 아버지들...

'가정에서 아버지를 세워주자'는 말에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니 그만두라고 목소리 높여야 할지, 아니면 시대의 대세 아니 어쩔 수 없고 그냥 다행이라고 감사히 여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아버지들.

집안에서 옛날만 믿고 큰 소리 쳐보지만, 전처럼 영(令)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편협한 아버지들이 불평이 아니라 기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뜻 있는 이들의 고민 깊은 이야기일 것이다.

한때, 김정현의『아버지』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이유를 묻고 설명해야 할지...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된 세상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이 더 지켜질 수 있겠는가? 건강한 정신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가 있겠는가? 의문부호이다.

어머니 은혜의 소중함 못지 않게 아버지의 귀중함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의 고백을 모든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절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리" (잠 4:1~4)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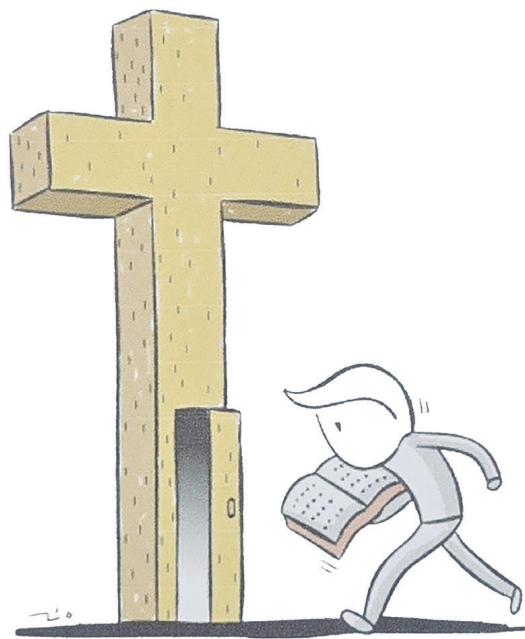
참 신앙

말씀위에
보호로 덮은 신앙
분명한 반석 신앙

감정위에
자기 의로 세운 신앙
분명한 모래 신앙

말씀위에 세운 신앙
위기 때 세워지고

감정위에 세운 신앙
위기 때 무너진다.



마음 속에 담아 놓은
깨달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다.
(눅 6:48~49)

2025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내 중소형교회 및 소규모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 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조용목 목사
교단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엄하석 목사
교단총회장
주성교회 담임김용준 목사
교단총회장
특별강사문찬우 목사
교단서기
예수온선교회 담임오세준 목사
교단총무·청년국장
순복음침례교 담임조선남 목사
교단전임회계·교육국장
대림밸리교회 담임임형순 목사
교단전임서기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주제 : “마음은 새롭게, 믿음은 뜨겁게”

(롬 12:2)

- 기 간 : 2025년 7월 27일(주일) ~ 7월 29일(화) 2박3일간
- 주 제 :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Second Blessing!) (행 19:2)
- 장 소 : 대림밸리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마지길 21-4)
- 대 상 : 각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5,6학년
- 등록접수 : 2025년 7월 27일(주일) 17시부터
- 회 비 : 청년, 중고등부 1인 7만원, 초등부 1인 4만원
*계좌번호 농협 302-0560-9540-41 임형순
- 문 의 : 1) 대림밸리교회 조선남 목사(010-5119-0164)
2) 포천아멘교회 임형순 목사(010-8262-4722)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각 지방회, 대림밸리교회 교육부

사설

현재의 이념 편향, 국민은 우려한다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원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의 지명이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지향은 진보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주요 헌법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들이 임명될 경우 현재는 진보 4인, 보수 2인, 중도 3인이라는 구도로 재편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경미 재판관 역시 실질적으로 진보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아, 현재가 사실상 진보 진영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 관측이 자비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념 재편이 향후 위헌 여부가 생길 가능성이 될 민감한 입법 사안들에 편향된 결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임기 중 종단하는 '재판 중지법', 검찰총장을 사실상 행정부에 종속시키는 '공소장 설치법', 내란죄 등으로 파면된 대통령 소속 경당의 해산을 가능케 하는 정당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야당은 현재 태풍도 있는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 10곳에서는 200년 만의 '물폭탄'이 쏟아져 1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비 피해가 심했던 곳은 한꺼번에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한 것인데, 지난 17일에 내린 비만도 300~400mm가 겉잡을 수 없이 쏟아져 재해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비의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인데, 기존의 통계나 예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절별, 강수량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풍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환경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9인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판결이 가능한 구조에 서, 진보 일색의 재판부가 공정한 헌법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김상환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성에서도 자우롭지 않다. 전형 강제 입원 발언 관련 대법원 판결 당시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는 대선 출마를 가로막은 뻔했던 판결의 향방을 바꾼 중대한 사건으로, 김 후보자의 현재 소장 지명이 단순한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결정이라고만 보기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인사가 현재소장이 된다면, 현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성 소수자 관련 판결 이력도 우려하고 있다. 그는 과거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낸 바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훈인과 가족제도의 법적 틀을 허무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 절대다수, 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특정 진영의 입김이 강해진다면 대한 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폭우피해 이웃 힘껏 돋자, 정부도 대비책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했는데, 이 강들의 본류에서는 흉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류와 지천에서는 피해가 커졌다 한다.

이번에 자연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그들의 아픔을 모두 위로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고난당한 이웃을 돌봐주어야 한다. '물폭탄'으로 물난리를 겪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도 재난 지역을 특별히 살펴주고, 앞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를 줄이는 방법은 자연재해보다 앞서가는 풍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는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목 양 신 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2025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내 중소형교회 및 소규모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 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주제 : “마음은 새롭게, 믿음은 뜨겁게”
(롬 12:2)

● 기 간 : 2025년 7월 27일(주일) ~ 7월 29일(화) 2박3일간

● 주 제 :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Second Blessing!) (행 19:2)

● 장 소 : 대림밸리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마지길 21-4)

● 대 상 : 각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5,6학년

● 등록접수 : 2025년 7월 27일(주일) 17시부터

● 회 비 : 청년, 중고등부 1인 7만원, 초등부 1인 4만원
*계좌번호 농협 302-0560-9540-41 임형순

● 문 의 : 1) 대림밸리교회 조선남 목사(010-5119-0164)
2) 포천아멘교회 임형순 목사(010-8262-4722)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각 지방회, 대림밸리교회 교육부

고문	대회장	주요 강사	청년국장	대회본부장	선교국장
조용목 목사 교단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엄하석 목사 교단총회장 주성교회 담임	김용준 목사 교단총회장 특별강사	문찬우 목사 교단서기 예수온선교회 담임	오세준 목사 교단총무·청년국장 순복음침례교 담임	조선남 목사 교단전임회계·교육국장 대림밸리교회 담임
임형순 목사 교단전임서기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대표회장 기자회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지난 7월 15일(화) 서울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대표회장 활동을 보고하며 향후 방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회원교단 및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 △연합기관 간 협력 모색 △정관 및 규정 정비 작업 △대정부 및 대사회적 입장 표명 등 다양한 활동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기총의 신뢰 회복과 대사회적 영향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나 사익이 아닌 공익과 복음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질문응답을 통해 한기총의 향후 방향과 대표회장의 소신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2025 저출산대책컨퍼런스’ 개최

CTS·(사)행복한출생든한미래, 교회가 지역돌봄의 희망 되자

2025 저출산대책컨퍼런스가 7월 17일(목) 수원명성교회(담임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이하 행복한미래)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 CTS남부방송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법개정에 따른 교회형 아동돌봄 방안제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지역 목회자와 시민들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에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경기도 본부장인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는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며 “출산장려에 앞장서온 수원명성교회도 교회 시설에 예식장과 카페를

만들어 지역을 섬겼지만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교회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교회의 부흥은 물론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실제적 대안이 제시된 것”이라고 전했다.

출대본 본부장인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1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각지의 10만 종교시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하며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이 돌봄사각지대를 넘어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경기도 지역 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부흥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자기들끼리만의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므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새 생명의 구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시시콜콜 따지며 베드로의 말에 부정적이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므로 모두가 믿어지게 된 것처럼, 그토록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충만한 지도자와 성도들이 많

아져서 섬기는 지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양준 목사 구리성민중앙교회 개척초기에 전도왕 박영수 목사 전도집회를 통하여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실의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도전받고 새사람이 되어 전도왕이 되었다.

지금은 크게 부흥되어 구리시에 교회를 세우고 교계에서 큰일을 감당하며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전도집회를 통해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화도교회 109명의 성도들 사랑의장기기증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재)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는 지난 7월 6일(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화도교회(김성환 목사)에서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를 통해 109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며 환자들에게 하나님과 사랑을 전했다.

‘생명을 나누는 감사’라는 주제로 드려진 생명나눔 예배는 말씀 선포와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성환 목사는 “오늘의 예배는 단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명나눔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다.

이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귀하게 사용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은혜”라며, 장기기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진정한 실천임을 강조했다.

본부 상임이사 김동엽 목사는 장기기증의 내용과 희망등록 방법을 안내했고, 109명의 성도가 생명나눔을 약속하며 말씀을 따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다.

김동엽 목사는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며, “감사의 절기에 생명을 나누는 현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화도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네슬레코리아, 국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 전해

다막 초콜릿 36,000개(4천3백만원 상당) 기부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종관)은 네슬레코리아(대표 토마스 카소)가 4,300만 원 상당

의 자사 초콜릿 36,000개를 기부했다고 지난 7월 8일(화) 밝혔다.

기부된 다막 초콜릿 36,000개는 지파운데이션 협력기관을 통해 국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다막(DAMAK)’은 뒤틀기예산 피스타치오가 함유된 네슬레코리아의 프리미엄 밀크 초콜릿 브랜드로, 고소한 맛과 풍부한 식감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기부는 ‘좋은 음식은 단순한 영양을 넘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 철학 아래, 초콜릿 한 조각이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리는 마

음으로 전달됐다. 이를 통해 네슬레코리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파운데이션 이보람 팀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네슬레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기부는 국내 취약계층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기쁨을 더하는 뜻깊은 나눔이었다”라며, “지파운데이션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서류 접수 : ① 일시: 2025. 8. 29(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류 심사 : ① 일시: 2025. 9. 11(목)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5. 9. 25(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5. 8. 29(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6. 2. 2(월)~3(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 3층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6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겹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엄하석 고시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 은혜와진리 성가합창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속에 열려

‘2025 은혜와진리 성가합창제’가 7월 5일(토) 성가연합회 주최로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많은 성가대원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은혜롭게 열렸다. 성가대원과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부르는 거룩한 노래인 찬송의 은혜와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고 찬양의 은혜 또한 충만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속감이 더해져서 복음전도와 교회 목표를 이루는 일에 더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성가합창제는 연합회 부회장 최석중 장로의 개회선언, 회장 김영일 장로의 기도, 조명제 목사의 설교, 친구한 성가대의 찬양 발표 순서로 이어졌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당시 예후사방 왕과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거룩함의 예복을 입고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신호로써 사용하실 것입니다.”

조명제 목사는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찬송은 그 자체로 울

려 펴지는 말씀의 선포와 같아서 부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들을수록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때로는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키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하 20:21-23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모든 성가대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채롭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해주었다. 이어서 손예의 형제와 허미리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찬양 발표에서 참가한 12개 연합성가대가 은혜롭고 감동적인 합창 찬송으로 예후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주를 찬미했고, GNTC 웹버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로 협연하여 찬송을 더욱 격조 있고 은혜롭게 해주었다.

각 성가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음색과 하모니로 정성껏 빛어낸 찬송의 매아리가 성전 가득 울려 펴지는 내내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깊은 구원의 은총 속에 빠져들며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성전 연합성가대(지휘 연성혜, 피아노 김해나)와 GNTC 플랫양상불(지휘 유진주, 피아노 김지혜)이 각각 특별 찬양과 특별연주로, 마지막 장로성가단(지휘



김희성, 피아노 김유정)이 축하찬양으로 성가합창제의 은혜와 감동을 더해주었다.

모든 출연팀의 찬양이 끝난 후,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감동’ ‘감격’ ‘활활’이란 세 단어로 마음에 느끼신 감흥을 표현하며 성가대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

이어서 모든 성가대원과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희성 지휘자의 지휘와 GNTC 웹버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 속에 하나님 되어 성전 가득 울려 펴지는 “alleluya” 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가연합회장 김영일 장로의 폐회사를 끝으로 이날 행

